

한일정상회담 (09.06.28) 주요 내용

2009.10.21

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아소 타로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.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5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, 아소 타로(麻生太郎)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 (2009.06.28)
 - 두 정상은 당초 30분 예정이던 단독 정상회담을 1시간 넘게 갖고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
- 키워드
 -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

□ 협의 내용

- 북핵문제의 한미일 삼각공조 협의
 - 일본측은 앞으로 한미일 3국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언급
 - 한국측은 지난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일본의 역할이 컸고,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이번 결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화답
- 한일 FTA 실무협의 개최 합의
 - 오는 7월 1일 한일 FTA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경제 분야 협력 공조, ‘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’에 대한 기대감 표시
 - *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부품·소재 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‘세일즈’ 활동

- 인적·문화적 교류 확대 합의
 -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,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, 대학생 교류 사업 등을 평가하고 오는 9월 도쿄에서 열리는 ‘한일 축제한마당’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합의
- 기타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 및 G20 금융정상회의 공조, 기후변화 대응,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공동지원 등 범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의

□ 성과

- 북핵문제에 대해 강력한 규탄메시지를 보내며 공고한 협력관계를 과시
- 독도, 과거사 등 의제 제외함으로써 ‘서툰외교’ 정착
 - 독도 문제 등으로 다시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슈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한 것
- FTA, 인적교류, 글로벌이슈, 경제분야에서 공감대 형성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‘한일 정상, ‘북핵.경제’ 공조 재확인’ (연합뉴스 09.06.28), ‘한일 정상회담...“5자 협의 필요”’(YTN뉴스 09.06.28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